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백상루에 올라 登百祥樓

강 위에 솟은 누각 벽공에 달아 있어
홀로 와 올라 보니 마음만 허탈할네.
희미한 물 나무너머 하늘 낮게 깔렸고
구름 안에 아스리한 그 속으로 명은 드네.
우주서야 아비 삼 모두 꿈과 같거니
산하는 예로부터 영웅을 몇 냐더뇨
깃발도 날리잖고 지는 해도 소리치니
새로 시 짓자 해도 좋지 않음 부끄럽다.

청명 清明

고운 별 봄 동풍은 따스이 불어오고
병 앓은 뒤 봄 만나자 외려 홀로 슬프다.
제비가 처마 드니 예전 살던 그 등지요
하인 너석 불 빌리니 새 밥 짓는 연기로다.
꽃 재촉 보슬비에 좋은 시절임을 알고
물싸움 한기한 놀이 소년 시절 생각난다.
정물은 그애론에 사람 이미 늙었거니
건강해져 술잔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유머

‘유머’나 ‘해학’이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봐도 무미건조하다. 우리 삶은 ‘유머’나 ‘해학’이 있어서 살찌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그렇기에 TV를 비롯한 언론이나 잡지에서 ‘코미디’나 ‘유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런데 이왕이면 격조 높은 ‘유머’나 ‘코미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나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내가 경험한 유머’를 몇 가지 소개한다.

서울대 총장 시절

서울대 총장시절인 1982년 가을에 국회 문공위에 출석했다. 대학입시 문제로 시끄러울 때였다. 한 의원이 질문했다.

“서울대 총장으로서 현행 입시제도를 어찌 생각합니까?”

“저는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입시제도이건 서울대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풀리니까요.”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다른 의원의 질문은 없었다.

호랑이담배 필 때의 이야기이다. 만일 요사이예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다.

총장 시절에 겪었던 또 하나의 유머. 일반적으로 서울대 학생들은 인사를 잘 안 한다. 하루는 계단 아래에서 하차하고 계단을 올라 총장실이 있는 본관으로 갔다.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인사를 한다. 참으로 신중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계단 뒤에는 5명의 학생이 있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앞의 학생이 인사하는 것을 봤는데도 말이다. 앞의 학생이 인사를 안 했다면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지나갔을 것이다.

“자네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네. 총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인사를 안 하나?”

“아이 총장님도... 그 많은 학생이 일일이 인사를 하면 귀찮아서 어찌하십니까?”

마치 나를 돕는 의미에서 인사를 안 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나도 웃음이 터졌다. 학생들의 유머가 멋지다고 까지 생각했다.

보사부 장관 시절

88년 12월 초 예결위원회에서였다. 어떤 의원이 난데없이 ‘박카스’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카스는 ‘바쿠스(Bacchus,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에 해당함)에서 따온 이름의, 존경하는 후배인 강신호(姜信浩) 회장이 경영하는 동아제약의 주요 상품이며 많은 사람이 즐겨 마시는 기호품이다.

왜 ‘박카스’가 화제에 올랐는지 전후 사정은 생각나지 않지만, ‘박카스’를 많이 먹으면 어찌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 내용이었다. 나는 아무 뜻도 없이 “물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하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판에는 ‘유머’로 넘겨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랬더니 야단이 났다.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이라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호호 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죄송합니다. 그저 일반론을 이야기 한 것뿐입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막무가내이다.

나는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당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한참 후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한광옥(韓光玉) 의원이 “권 장관의 말이 뭐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하는 말이 떨어지자 장내의 소란이 진정되었다.

한 의원은 당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었다. 나는 한 의원과 평소 친교가 별로 없던 사이였는데, 그는 나를 도와준 것이다.

나는 요사이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내 판에는 ‘유머’로 넘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TV광고
TV 광고는 별로 시청하지 않는 버릇이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근래 제일 인상적인 광고장면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다.

아버지가 묻는다.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아들이 답한다. “대통령이요.”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시켜 주겠냐?” 아들의 답 “탕수육.”

나는 그 화면을 보고 상당히 유쾌했다. 어린아이들의 순박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유머’ 치고는 최상의 유머이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서는 상당한 ‘유머’를 맞출 수 있다. 나는 우리집안의 외종손자·녀에게서도 상당한 ‘유머’를 느끼게 되는 때가 많다.

경찰청장의 유머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켜보니 어청수(漁淸秀) 경찰청장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왔다. 그가 불교를 차별하였다 하여 근래 불교계가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장 해임 등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어느 의원이 물었다. “KBS 사장은 임기가 있는데도 물러났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의 입장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웃었고 시청하던 나도 웃었다.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의 관계가 악화 된 것은 조계사를 나오던 총무원장 차를 경찰관이 검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전부터 상당히 골이 깊었던 것 같다.

더욱이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때부터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6만여 명(경찰 집계, 불교계 집계는 20만 명)의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추석(9월 15일) 후에 전국적으로 더욱 큰 데모를 하겠다고 했다.

이쯤 했으면 불교계가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했고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정부의 자세가 미흡하다 하여 아직도 이 문제는 진행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어청수 청장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답력도 어지간하다고 생각되었다.

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관광 명소

웅진 북도면의 섬들



■ 향촌 권오창

〈지난호에 이어〉
시도는 강화도에서 활을 겨냥하여 쏘는 표적이 되는 섬이라고 하여 시도 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연도교를 지나 모도에 이르러면 배미꾸미 해변에 닿는다. 이곳은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섬이고 일찍이 조각가 이철호 씨가 개인 작업실 겸 건물을 짓고 앞 마당에 잔디를 깔고 그 위에 자신의 예술 작품을 노천에 전시한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는 예리듬 조각 예술을 추구하는 작가인데 그의 작나라한 남녀의 나체 조각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서해 바다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시공적인 장소가 되고있다.

모도에서 건너다 보이는 장봉도는 전세 선박으로 웅진 선착장에 내왕할 수 있으나 신도 선착장에서 30분이면 그곳에 갈 수 있으니 해로가 가장 좋은 길목이다.

장봉도 국사봉에 가는 등산객은 삼목 선착장에서 신도 선착장을 거쳐 40분이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장봉도에 닿으면 해변에 접한 인어상을 만나볼 수 있다 옛날 장봉도 앞 날가지 어장에서 어느 어부의 그물에 인어 한 마리가 걸렸는데 불쌍히 여겨서 산재로 놓아 주었더니 그때부터 고기가 잘 잡히고 만선의 꿈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전하여 오고있다.

장봉도에는 웅암 해변 진촌해변 한울해수욕장 잔우물 약수터 가막머리 누시터 장봉 산책로 갯벌 체험장 농촌체험장 견어장 등 골고루 이색적인 섬 풍광을 맛볼 수 있다.

이 섬들의 특산물인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는 저염도 천일염과 장봉도의 김은 청정 바다에서 김발을 바닷물 밖으로 노출시켜 햇빛으로 김을 기르는 지주식 방법으로 채취되는 김은 맛이 특별하다.

그리고 맑은 바닷물에서 자란 삼합과 영양가 높은 자연산굴 바지락 조개류는 관광객의 입맛을 돋운다.

농산물로서는 속이 노랗고 당도가 높은

고구마는 특미이고 서늘한 해양성 기후에 생성된 포도는 신맛이 적어서 일품이다. 또한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다.

섬 비탈에 자생하는 곰취,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곰취는 여행자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깨끗한 숙박 시설과 대중음식점은 소박한 고향의 정취를 자아낸다.

이들 섬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영토에 속하였고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영지 였었으며 고려 현종9년(1018년)에는 웅진으로 관할되었다.

이 섬들의 황홀한 서해의 낙조를 보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오늘 필자는 임진년 새해 벽두에 전 상공부 이라공단 이사장 서은석님 전 법무부 일본 오사카 영사 정호연님과 함께 산책 관광을 동행하게되어 더욱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며 현장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기업정보

권오철 하이닉스 반도체 (주)사장

작년 영업이익 3255억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권오철)가 지난해 이어진 D램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25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이 재작년(12조1061억원)보다 14.1% 줄어든 10조3368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액을 전년보다

20% 증가한 4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올해 투자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낸드플래시부문에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철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우 리투자증권에서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올해 중반쯤 세계 경제



가 안정화되면서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권사장은 경쟁

사인 일본 엘피다와 미국 마이크론의 합병추진과 관련, 해외 경쟁사들간 인수·합병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모르지만 힘이 약해진 해외 경쟁사들의 투자제한으로 불황 감축이 있을 것이고,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회사들에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강경래 기자 인용)

칼럼

청빈(淸貧)

■ 毛村 權 五 福 (본지 편집위원)

고등학교 때 좌우명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겼던 단어가 청빈(淸貧)이었다.

시인이나 농촌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직업에 어울릴 만한 좌우명으로서 이 청빈을 골랐던 것이다.

그 당시에도 문학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들으면 적이 없었더라 나중에 가난한 살림을 꾸릴 것은 뻔하니 ‘자발적 가난’으로 포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겼다.

‘맑은 청’에 방점을 두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에게도 청빈이었지만 많은 한국인에게도 행동하지 못하면서도 이르지 못하면 서로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그 어떤 경지의 것이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이다. 당신이 남긴 글까지 다 버리라고 한 이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대해 한국인은 열렬한 존경심을 보인다.

그러나 법정스님이 열반했을 때에 무



소유 열풍이 그렇게 무섭게 불었음에도 이 사회가 물질(物神)의 정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는 징후

는 없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법정 스님이 난(蘭)을 얻자 처음엔 그 난 덕에 즐거움이 있었으나 곧 난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번민으로 이어져 결국 ‘난’을 버리는 것이 즉, 청빈인 것이다.

우리 모두 무소유로... 깨끗한 마음으로... 생(生)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교양만평



작은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이익을 너무 많이 포기하면 큰 이익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승룡(민토 소장)

이 달의 시

백년초 꽃피는 날은



청하 권대옥

시름한 생애 끄트머리에서

별 님은 꿈 찾으려면

좁혀 숨비소리가 동심원 내어주고

하얀 파도 오가는 제주바당 앞

검은 돌담 속에 고이 자란 백년초

살가운 눈웃음으로 맞이해 줄, 올레길

끄트머리까지는 조신스런 걸음 가야 한다

물안개 열어젖힌 낮선 비양도에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의 한낫

햇는 살포시 내린다는 소식 오면

가시 풀, 심장 속에 갈무리한

금능 백사장도 멀어져가는 기억 속이다